상징과모래놀이치료, 제10권 제2호
Journal of Symbols & Sandplay Therapy
2019, 12, Vol. 10, No. 2, 51-76.

가족의 문제를 공유하고 있는 6세 여아의 모래놀이치료 사례: '심리적 변환'

A case study of sandplay therapy for a 6-year-old girl sharing family problems 'psycological transformation'

박 서 희*

Seohee Park

<Abstract>

This is a case study of sandplay therapy with a six-year-old girl with anxiety. It concerns her journey of overcoming emotional wounds and experiencing growth. We conducted 20 sessions with the client over 10 months from September 2018 to July 2019. We found that her unconscious processed family problems that nobody expressed in language. The client expressed this through symbolic play in her sand trays. Through the sandplay process, she started to overcome her psychological difficulties. We noted the link between the healing power of the unconscious and her psychological transformation. Thus, our study shows that even if only one child has sandplay therapy, it is possible to deal with family problems or members through it.

Keywords : Anxious, Family problems, Sandplay therapy, Symbolic images, Collective unconscious

* 남양주 아동발달센터 상담사 (2hworld@hanamil.net)

Ⅰ. 서 론

Jung(1981)은 부모가 자신의 문제를 바로 보도록 하는 순간 아이의 문제는 사라진다고 하였다.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1차적 대상은 어른임을 강조하였다. 교육을 시키는 좋은 길은 바로 자신이 교육받는 것인데, 이는 아이들과 가장 가까이 있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모나 교사를 언급한 것이다. Jung에 따르면 가정의 희생자가 아이가 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아이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로 보았기 때문이다. 부모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아이의 장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고 부모의 문제나 갈등은 아이에게로 전해지게 된다. 굳이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더라도 아이는 부모의 심적 배경의 일부이기 때문에 아이가 부모의 무의식을 느낄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Jung은 성장과 발달을 하는 아이들의 경우에 원시적인 무의식과는 단절될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하였는데 의식의 발달에 방해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이를 제대로 알고자 한다면, 부모나 어른들은 자신들의 내면을 알고 종종 무의식적 생활로 깊게 내려가 그들 자신의 문제를 만날 필요가 있는 것이다(Wickes, 1977).

Kalff(2003)는 모래놀이치료에서 내면의 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를 주고 정신을 움직이는 효과적인 수단이 됨을 언급하였다. 비언어적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기회를 접하는 것만으로도, 문제를 극복하고 치유로 가게 된다. 모래 놀이는 의식과 무의식의 다리로써 그림이나 시각적인 이미지가 정신을 움직이는 좋은 수단이다. Homeyer & Sweeney(2011)는 모래놀이치료가 깊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가교역할을 하며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것에 강한 힘이 있다고 보았고 모래놀이치료의 감각적인 경험은 혀까지 느슨하게 풀어놓는 것과 같다고 설명하였다. Weinrib(2004)는 모래놀이를 하는 동안 아이들 과정에 침입하지 말 것을 강조하였으며 모래놀이치료가 변환의 길를 안내하는 것이며 변환의 그릇을 제공한다고 보고하였다. 심리적 변환은 무의식의 과정이라 신비적이지만 무의식 깊은 층에는 정신을 치료하는 에너지가 있고 모래놀이치료는 치유에너지를 활성화시킬 수 있게 된다. 무의식은 자연의 산물로 의식의 통제를 벗어난 활동의 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의식으로 생각이 떠오르는 것(Jung, 1981)처럼 모래놀이치료에서 만들게 되는 표현과 같고 정신의 자연스러운 언어는 은유적(Jackson, 1996)인 것이다. Wickes(1977)는 무의식은 살아있으며 우주적이고 원형적인 상이 묻혀있는 곳으로 의식과 끊임없이 교류하는 상태로 이곳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상(image)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게다가 Cooper(1978/2014)에 따르면 상징은 상징을 사용하고 있는 인간보다도 더 넓고 깊이 있는 영역으로까지 들어갈 수 있는 열쇠이다. 더욱이 상징은 시각화가 되면서 무의식의 내용을 의식에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무의식의 정신 에너지를 뚫고 자연스레 흐르면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Furth, 2002).

Furth(2002)는 정신에서 기인하는 무의식 재료는 바깥세상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정신에

남아있을 수 있고 이러한 어려움이 상징적으로 드러나는데 쉽게 위장될 수 없는 측면을 언급하였다. 또한, Cooper(1978/2014)는 "인류가 공유하는 마음의 바탕"이 상징체계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을 부인하게 될 때 장애가 온다고도 보았다. 흔히 가족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모래놀이치료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방어도 허물 수 있게 되어 내담자의 저항을 자연스레 극복할 수가 있게 된다(Homeyer & Sweene, 2011). 한편, Kalff (2003)는 아이들 정신 측면의 발달(Psychic Development)의 정체가 어떻게 풀리는지(Lee, 2010; Boo, 2014; Kowen, 2017)를 설명한 바 있다.

본 사례에서는 가족의 문제를 공유하고 있는 6세 여아가 모래놀이치료를 통하여 자신의 어려움을 다루며 심리적인 변환의 과정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내담아와 가족 배경

본 사례의 내담자는 6세 여아의 조로 모래놀이치료를 의뢰하기 얼마 전부터 밤에 자다가 갑자기 깨어 울면서 엄마와 떨어지지 않겠다며 흐느껴 우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어른이 되어서도 엄마와 떨어지지 않겠다는 말을 하여 조 부모의 걱정이 시작되었다. 조의 분리 경험은 잠깐씩 조의 조부모 댁에 다녀오는 정도가 다였고 특별하게 장기간의 분리 경험은 딱히 없었다.

처음에 연구자가 조를 만났을 때 조의 얼굴에서 전혀 표정을 읽을 수가 없었다. 조는 주변의 진열된 소품을 살피는 일도 없었고 앞만 보고 걸어가는 모습이 마치 '얼음 공주' 같은 인상을 주었다. 조는 하얀 드레스를 곱게 차려입었으며 인형처럼 예쁘고 귀여운 외모의 아이로 예와 아니오 정도의 표현으로 고개만 끄덕이며 소통하였고 말은 거의 하지 않았다. 조는 치료사에게 뭔가 물어보려고 입을 떼는 데에도 뜸을 많이 들였고 치료실 내 소품을 가지러 갈 때도 머뭇거리는 모습 등의 표현이나 움직임이 매우 느리고 소극적인 편이었다. 한 회기 안에서도 여러 번의 허락을 구하고 경직된 모습이 지속 되었다. 조의 모 보고에 의하면 집에서도 행동이 느려 종종 모의 목소리를 커지게 만든다고 하였다. 조는 잘 놀다가도 낯선 사람이 오면 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심지어 좋아하고 잘 다니던 학원인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원아들이 생기면 금세 그만두려는 경향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조의 부모는 결혼 이후에도 원 가족으로부터 간섭과 개입을 많이 받아 왔다. 조의 부모는 결혼에서부터 출산과 자녀 양육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조의 조부모로부터 직접적인 압력을 받아 왔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종종 말싸움으로까지 번지곤 하였다.

조의 모 보고에 따르면 조의 부는 내성적인 성격으로 말수가 적었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보다는 주로 일을 한다고 하였다. 조의 부는 결혼 전부터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았고

결혼 이후에도 아버지와의 마찰은 계속되었다. 조의 조부모는 요구가 많으면서 동시에 손자녀 양육에 개입하여 도움을 주고자 하는 측면도 있었다. 이러한 조의 조부모에 대한 조의 부는 대립하고 맞서는 경향을 보여주었다면 조의 모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순종적인 모습을 보였다.

조의 모는 어릴 적부터 친정 부모의 갈등과 친정 모의 힘겨움을 지켜보면서 자라와서 특히 친정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이러한 조의 모는 성인이 되자 부모님으로부터 회피하듯이 일찍 독립을 시도하였다. 결혼 이후 조와 조의 동생을 낳은 지금에 와서도 조의 모는 친정부에 대한 미움과 불만이 여전하였다. 현재 조의 모는 사교적이며 쾌활해 보이지만 어릴 때는 내성적이며 소극적이었고 이는 성인이 되어 변한 성격이라고 보고하였다.

조와 함께 사는 가족은 조의 부모와 동생으로 모두 네 명이다. 모의 보고에 따르면 2살 아래의 동생은 조와 달리 밝고 사교적이며 잘 생활하고 있었다.

연구자는 조의 부모로부터 사례보고서를 써도 좋다는 승낙을 받았지만 개인 정보의 보호 차원에서 '조'라는 명칭과 대략적인 가족사만을 기술하였다.

Ⅲ. 모래놀이치료 과정

가족의 문제를 공유하는 6세 여아의 모래놀이치료 사례는 10개월 동안 20회기가 진행이 되었고 그 중 모래 상자는 모두 19상자이다. 첫 상자에서부터 마지막 상자까지 조의 모래놀이치료과정에 있는 모래 상자는 그 흐름을 나타내주었고 흐름에 따라 변화를 살펴볼 수 있었다. 모래놀이치료는 정신의 흐름(Kalff, 2003)이라고 하였는데 조의 모래놀이상자에서도 이를 살펴볼 수 있었다. 본 사례는 무엇보다 모래놀이상자를 분석하면서 편견을 버리고 '자료가 말을 하도록(Jung, 1981)' 하고자 하였고 국내외 수퍼바이저들의 수퍼비전을 거쳤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석하였다.

1. 2회기: 모래 상자 1

Kalff(2003)에 의하면 보통 첫 상자에 문제도 있지만, 해결책도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림 1은 조의 첫 번째 모래 상자이다. 그림 1에서 모래를 판 바닥에 푸른 사과가 있고 음식이 있지만 그리 풍성하거나 따뜻한 느낌을 주지는 않는다. 음식은 돌봄과 관심받음의 표현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조는 상자 전체를 다 만지거나 만들지는 않았다. 조는 평소 표현이 적고 말과 행동이 느리고 방어도 많지만, 첫 상자에서 파란 바닥을 드러내기도 하면서 모래의 움직임을 표현해주고 있다. 조가 모래의 바닥을 드러낸 것은 자기 내면의 이야기를

그림 1. 모래 상자 1

들어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를 긍정적인 측면으로 살펴보게 된다. 소품을 이동하거나 손가락으로 모래를 만진 흔적을 살펴볼 때 이 길은 직선이기보다 우회하는 과정으로 보이는데 이는 곧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von Franz, 1997)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림 1에서 상담사가 앉아 있는 자리에 울타리가 쳐져 있음을 볼 수 있다. 상담사가 있는 자리는 상담사에 대한 요구나 이미지의 반영이 될 수 있는데 조가 모래를 만지지 않았다는 것은 세상을 보는 조의 입장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조 자신과 모래놀이치료실의 상담사의 구분이 될 수도 있겠고 호의적인지 거부적인 모르기 때문에 구분이 필요할 수도 있어 보인다. 이는 곧 조가 조의 부모에 대해서도 같다고 볼 수 있겠다. 또 한편 울타리가 안아주고 지지해주는 모양으로도 보인다. 실제, 가정에서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면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 스스로 보살핌이 필요하다. 그래서 마트에서 많은 것을 사서 가고 있으며 먹어야 하는 사과들이 보인다. 그리고 울타리 안에는 그네가 있는데 그네는 몸을 흔들어 진정시킴의 효과가 있고 스스로 달래는 의미가 있기도 하다. 그네에서 놀았던 즐거운 일이 곧 그네 타기가 되기도 한다. 그네는 타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양극적인 감정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조가 만든 모래상자에서 집에 대한 표현은 복잡하고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집은 사람이 머무는 곳으로 보호의 상징이며 의례에서 집은 자궁 퇴행(Cooper, 1978/2014)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글루(igloo)는 겨울을 나기 위하여 짓거나 사냥을 위한 용도로 "북 에스키모의 경우에는 계절에 따른 생존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요구되었던 주거 이동의 유연성(브리태니커, 1970/2002)"을 살린 것으로 툰드라 지역에서 사는 이뉴잇들의 지혜가 발휘된 집(위키백과, 2011)이다. 이글루 옆에 놓인 집은 일본의 집으로 지역의 특성상 적설량이 많고 눈이 무거운 시라카와의 자연조건을 고려하여 지어진 집이다. "이런 지붕의 꼭대기선은 어느 집이든지 동서 방향으로 되어 있으며 지붕에 빛이 잘 들게 하기 위한 것이고, 마을은 남북

으로 길쭉한 골짜기에 위치하는데 남북으로 강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바람을 맞는 면적을 작게 하기 위함(갓쇼즈쿠리 보존재단, 2019)"이다. 또한, 큰 고도차를 보이는 하큐 산의 기슭에 있는 "시라카와의 합장 부락은 특히 회복이 곤란한 변화의 영향 아래에서도 손상되기 쉬운 상태에 처한 환경과 사회기능에 적합한 예(JNTO, 2019)"이다. 또한, 얼음은 경직, 차가움, 탄력성이 없음과 비영속성의 의미를 가진다. 또한, 마음이 완고함, 사랑이 얼어붙음이나 없음을 뜻한다(Cooper, 1978/2014). 기본적으로 추운 겨울에는 생명이 멈춘다고 본다(von Franz, 1997). 조의 경우에서도 정서나 관계적인 측면을 살펴봐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다. 서로 다른 듯 보이는 두 집이지만 기본적으로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의 환경이라는 공통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다.

모래 상자에서 비슷한 표현이 반복적이었지만 하나도 똑같은 모래 상자는 아니었고 조는 모래 상자를 만들 때마다 표현이 많은 편이었다. 이처럼 모래놀이치료에서의 모래 상자의 표현은 일상에서 보였던 모습과는 사뭇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일상에서 보이는 증상이나 문제 행동이 설사 비효율적으로 보일지라도 자신의 환경 안에서 긴장을 푸는 관점에서 목적이 있는 행동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자신의 환경 속에서 두려움, 걱정, 싫은 마음 등의 메시지(Pattis Zoja, 2018)로 읽어본다면 내담아의 행동과 증상을 이해할 수 있다. 조는 맨 처음 이글루를 모래 상자 한가운데에 가져다 놓았고 이글루의 입구에서 손가락으로 꼬불꼬불 길을 만들어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동을 하면서 우측 하단에 있는 바다로 연결시켜주고 있다. 하지만 짧은 단어의 사용과 손가락을 가리키며 설명해주고 있는 조의 목소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였다.

우측 하단에 있는 바다는 파란 두 군데로 표현되어서 바닥을 드러내 주고 있다. 가운데가 다리인데 양손으로 모래를 모아서 연결해주며 "다리 아래는 바다로 연결이 되었다"고 하였다. 우측 하단의 바다 표현은 깊은 물이며 깊은 무의식으로 볼 수 있고 어머니 원형으로도 볼 수 있어 가족과의 관계나 정서와도 연관이 된다. 조가 깊은 무의식의 내면세계에 열려있음을 보게 해준다. 조의 모래 놀이작업은 집에서부터 비롯하여 기다란 길을 따라가는 과정임을 시사해주었고 조가 앞으로 할 모래 놀이 여정을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였다.

가운데 있던 이글루가 좌측 하단으로 오기 전에 이글루 안에서는 작은 용기에 모래를 담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졌다. 그런 후 이글루를 치우고 과일을 가져다 놓고 마트가 되었으며 이글루는 좌측 하단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다. 여기서 이글루가 이동하기 전에 작업이 이루어졌음을 살펴볼 수 있다. 치유가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창조적인 퇴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모래놀이치료는 자궁의 조건을 제공하여 손상한 어머니상을 회복시켜 주게 된다. Self 배열이 활성화되면 손상된 자아는 치유를 할 수 있게 되고 심리적 재생이 이루어지게 된다. 즉 무의식과 어머니는 상징적으로 동등한 것이다(Weinrib, 2004).

신데렐라는 엄마 관계에서 죽고 버려지며 박해받는 공주인데 조는 이처럼 자신을 신데렐라로 여길 수 있다. '나를 몰라주고 나를 싫어하고 덜 사랑해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림 1에서 사과가 등장하는데 조의 경우에 백설 공주는 등장하지 않지만, 사과는 그림 1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사과는 백설 공주가 계모로부터 돈이 든 사과를 먹은 후 왕자의 키스를 받기 전까지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된다(von Franz, 1997). 백설 공주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는 개성화로 가기 위하여 겪게 되는 고통일 수 있다. 이를 조의 상황과 연결 지어볼 때 실제 '몸을 얼어버리게 할 정도의 긴장을 주는 집안의 분위기'가 될 것이다. 이는 조가 먹어야 하는 사과 측면의 요소이다. 조에게는 힘든 상황이지만 이러한 상황을 겪고 내었을 때의 조는 자아에 힘이 생기고 한층 더 성장하게 된다. 사과는 지식과 지혜를 뜻하기도 한다(dictionary of symbolism, 2019). 이를 먹음으로써 지혜와 의식을 얻게 되는 성장과 연결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도형적인 측면에서 살필 때, 삼각 지붕의 형태는 남성 원리나 영적 세계의 상징(Cooper, 1978/2014)으로 볼 수 있다. 위를 향하여 솟아오른 긴장된 형태로 밑변을 바탕으로 위로 향하여 있어, 현재의 자신을 넘어설 수 있음과도 관련이 있다. 이러한 상황이 사람을 넘어뜨리게도 하겠지만 이를 계기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능력까지 키워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삼각형은 원과 사각형에 비하여 방해를 더 받고 있어 저항이 더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사각형이나 십자보다도 방해가 더 있게 되는데, 즉 이것은 "현재의 삶을 살아내는 것, 현실이라는 저항이 큰 영역에서 삶의 실현 가능성과도 관계"가 있다. 또한, 정사각형과 비교하여 더 역동적이며 더 많은 불규칙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삼각형의 형태가 가진 특성이다. 따라서 인간에 적합한 척도이고 삼각형 속에는 비범한 균형 잡기의 능력이 담겨 있다(Riedel, 2013)." Cooper(1978/2014)는 "역삼각형은 여성 원리, 모체를 나타내며. 바다나 자연계, 육체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 수평한 변이 4대 원소 중의 땅을 상징하는 이 삼각형은 흰색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조가 만든 모래 상자에 있는 이글루도 흰색이며 이글루는 땅 아래로 파서 만들어 역삼각형의 모양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산과 동굴의 상징체계에서 산은 정삼각형이며 남성이고, 동굴은 역삼각형이며 여성을 나타내는 것이다(Cooper, 1978/2014)." 나란히 놓은 두 집을 조는 왔다 갔다 했으며 이 집은 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다. 비록 어린아이이지만 자신이 처한 상황 즉, 긴장 속에서 보완이나 균형을 찾기 위하여 현재의 자신을 넘어서 노력하는 과정과 통합이 조에게 있어 개인화의 과정이 될 것이다.

2. 3회기: 모래 상자 2

첫 상자 이후의 두 번째 국면의 상자들은 종종 무의식의 더 깊은 층으로 빠르게 침투하며 건드려지지 않은 날것의 재료인 에너지와 접촉하여 혼란스러울 수 있다(Weinrib, 2004; Cameron, 2001)고 하였는데 조는 더 자세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하였다. 조는 가장 먼저 사과의 빈 상자, 우물과 침대를 들고 왔는데, 조 자신의 이야기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소품이기도 하였다. 부모의 무의식을 공유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집단 무의식으로 볼 수 있고 조의 깊은 무의식과 연결이 되는 것이다.

그림 2는 3회기 때로 조가 두 번째로 만든 모래 상자이다. 상자를 처음 볼 때는 상당히 복잡하고 무질서하게 보였지만 상자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그 내용이 풍부하고 하나도 놓칠 것이 없는 상자임을 곧 알게 된다.

모래 상자의 대각선 우측에는 가족만의 공간으로 보이며 가족의 것으로 보이는 침대들이 일렬로 배치되어있다. 우측으로부터 성인용 부부 침대가 있고, 이어서 두 개의 침대가 나란히 있다. 가운데 침대가 침대 양옆으로 보호막 처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더 보호되어야 할 아이의 침대로 보인다. 그리고 이어서 있는 침대는 가장 가장자리에 있으며 외부로 연결된 문간에 있다. 거실로 보이는 중앙에는 네 명의 사람이 서 있다. 결혼 커플은 엄마, 아빠이고 안쪽에는 동생이 있고 가족에서 다소 떨어져 있는 성인 여자 소품을 언니라고 칭했으며 내담아 본인임을 언급하였다. 상자 안의 사람들과 침대의 배치에서도 이들 가족 간의 거리 및 관계를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다. 조의 모래 상자에서 침대는 부모와 아이용으로 12번가량이나 나온다. 15회기부터 침대가 사라졌고 이후엔 아동용 침대만이 나오고 있다. 2회기인 그림 1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우측 하단에는 바다와 연결되어 있었다. 또한, 회기별 침대의 위치변화도 있었고 눈여겨 볼만하다. 침대는 무의식으로 하강할 수 있고 잠을 잘 수 있는 가구이다. 엄마의 무의식과 공유하고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신비적 참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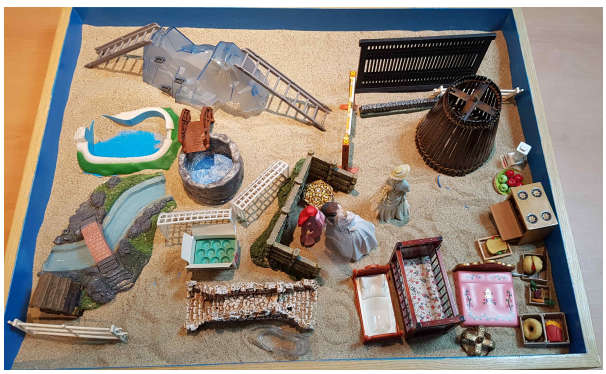

그림 2. 모래 상자 2

개인적인 것보다 집단 무의식의 원형적 상자라고 볼 수 있겠다.

가족의 보물과 왕관은 가치 있는 황금으로 되어 있다. 침대들 가운데 우측에 있는 두 침대 사이에 있는 동생의 왕관이 있고 커플과 더 보호받는 위치에 있는 동생이 있는 쪽에 가족의 보물도 보인다. 하지만 조만의 보물이나 왕관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투명하여 잘 보이지 않는 유리구두 한 짝만이 모래 상자의 가장 앞쪽에 놓여져 있다. 바로 이전인 첫 상자에서도 신데렐라가 등장하는데 이번에는 신데렐라는 없지만 대신 유리구두가 나오고 있다. 신데렐라의 구두는 크지만 투명한 유리로 되어 눈에 띄지 않는 신발이 조의 것으로 자신의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신발은 예전부터 신분의 상징으로 신고 걸으니까 자아 정체성의 상징으로 볼 때 자신을 알아가며 찾아가는 것이다. 신데렐라는 무도회에 참석했다가 서둘러 오는 바람에 신발 한 짝을 떨어뜨리고 나오게 된다. 잃어버린 신데렐라의 신발은 왕자에 의해 찾게 되는데 조도 이처럼 자신의 신발을 찾아야 하는 의미로 여겨졌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조는 자신을 성인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가족 안에서 조가 인식하는 가족의 시선은 자신을 성인으로 바라보며 자신을 이미 다 커버린 사람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이다. 조의 연령에서 볼 때 왕관은 부모의 사랑이 된다. 하지만 동생의 것으로 자신의 왕관은 없고 사랑을 못 받는 현실로 여기고 있으며 그래서 신데렐라처럼 왕자가 와서 사랑을 이루듯이 조 역시 사랑을 받고픈 욕구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조의 것으로 보인 침대도 다른 가족의 침대와 일렬로 같은 선상에 있으며 가족의 구성원이 되고픈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눈에 띄는 소품은 조 뒤에 있는 진한 밤색의 커다란 원통과 (창)문처럼 보이는 커다란 직사각형이다. 원통은 보통 병아리를 키울 때 싸리나무로 만들어 사용되고 있다. 신기하게도 이 재료들은 조가 13회기에서 모두 자신의 집을 만들 때 사용한 재료이기도 하다. 바로 옆에는 사과 7개와 믹서기가 있고 숟가락은 거의 모래에 파묻혀져 있어 잘 보이지 않으며 활용되고 있지 않아 보인다.

모래 상자의 좌측으로는 많은 종류의 물들이 있다. 좌측은 우측보다 무의식의 자리이며 물은 무의식을 상징한다. 깊은 우물물에서부터 졸졸 흐르는 자연 속의 시냇물과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수영장의 물도 있다. 무의식과 의식의 서로 다른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고 좌측 상단에는 얼어버린 얼음산도 높게 자리 잡고 있다. 조가 아직 어린아이이지만 더 높은 정신영역으로의 상승 에너지와 관련지어 볼 수 있겠다. 이를 우측 하단과 같이 살펴보면 대각선으로 긴장감이 고조되어 있고 좌측 상단은 얼어있다. 산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정신영역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연결의 가능성을 사다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산과 물로 이어지는 다리도 사다리를 포함하여 모두 5개나 있다. 다리도 많지만, 담이나 울타리도 많으며 경계도 유달리 많은 편이며 담는 용기 또한 많다. 이러한 측면은 계속 이어지는 앞으로의 모래 회기를 보면서 더 분명히 밝혀질 것으로 보았고 방어해서 울타리가 많은 것인지 혹은 구분 짓는 경계가 필요한 것(권미라, 2017)인지 그 밖에 밖이 안전하

지 않다고 여겨서 울타리가 많은 것인가 등의 가능성도 열어두고자 하였다.

이 상자에서 부모를 신랑, 신부로 묘사하였고 이후의 모래 상자에서도 지속적으로 자주 표현이 되고 있다. 결혼의 남녀가 통합의 상징인데 모래상자에서는 분화되지 않고 명확하지 않은 모호한 측면을 나타내고 있다. 집안의 스트레스나 조의 스트레스가 엄마와 아빠에게서 오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 보였다.

3. 4회기: 모래 상자 3

4회기부터 12회기까지 모래 상자의 특성을 보면 빽빽한 소품들로 채워져 있는데 이는 에너지가 내면으로 들어가 있음과 무의식의 내용이 많음을 의미한다고 보았고 조의 경우는 부모의 무의식을 공유하기 때문에 할 말이 많았음을 이후의 모래 상자의 흐름으로 파악이 되었다. 이는 내면의 더 깊은 층의 무의식에서 들려주는 풍부한 내용으로 보았고 밖으로 드러나는 증상, 즉 표현이 적은 조의 모습과는 달리 대조적이다.

그림 3을 보면 한 상자 안에 수많은 소품을 보게 된다. 집안의 많은 가구와 사람들의 내용은 복잡한 내면, 복잡한 감정과 연결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이전 상자와 비교하면 정리가 되어가고 있다. 상자 앞에는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데 3회기에서도 비슷한 지점에 연결된 다리가 있었다. 차이가 있다면 3회기에서는 모래상자의 내용상 안과 밖을 연결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좌측은 무의식인데 좌측으로 연결된 곳에는 물이 많이 놓인 곳이었다. 그러나 4회기에서의 다리는 벨과 방안 침대에 누워있는 신데렐라를 바로 연결해주고 있다. 방안에는 그 밖에도 마술봉을 들고 있는 요정, 새를 들고 있는 쟈스민과 누워있는 인물들도 있다. 좌측에는 방에서 밖으로 나가는 제대로 된 문이 처음으로 사용되었고 가운데 자신을 표현한 소품 우측으로는 외부로 향하는 다리가 있다. 이전 3회기에 비해 울타리의 두께와

그림 3. 모래 상자 3

높이는 낮아진 측면이 있는데 모래놀이치료실의 공간과 상담사에 대한 내담아의 방어나 경계가 다소 누그러졌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고 첫 시간과는 달리 홍얼거림도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경계는 지어지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가운데 가족들은 사각 테두리가 있는 가장 중앙 부분에 위치하고 그 안에 신부가 있다. 조의 표현에 따라 조 자신의 측면이 될 것이다. 나이보다 어른으로 묘사하였고 곧 결혼을 앞둔 신부라 하였는데 이는 남성성의 측면과의 결합이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상자 상단에는 연장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도끼 등의 연장은 뭔가를 작업하기 위하여 쓰는 도구이다. 도끼를 들고 있는 여성 소품은 13회기에서 가족의 보물과 왕관을 앞에 놓았던 인물이기도 하다. 특히 도끼는 뭔가를 자를 때 사용하는 것으로 칼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도끼는 천공신의 태양과 힘을 상징하거나 오류의 극복 등을 의미(Cooper, 1978/2014)하는 것으로 이성적인 사고나 판단과 연관시켜볼 수 있다. 바깥 영역에서 뭔가 새로운 측면들과 접촉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상단 좌측에는 그루터기가 놓여져 있다. 그루터기는 히브리어로 참나무 '엘론'인데 상수리 나무는 우리말 성경에는 '참나무로 나오고 있으며 나무가 잘려도 뿌리가 있으면 다시 솟아나서 예부터 '진짜 나무'이며 좋은 목재로 여겨졌다. 그루터기는 "베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고 거룩한 씨"라고 하여 '신성한 힘'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다(Catholictimes, 2015). 그루터기 옆에는 우물이 있고 무의식으로 깊게 내려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물은 여성 원리, 태모의 자궁을 뜻하기도 하며 지하세계와의 접촉을 통해서는 치유력(Cooper, 1978/2014)이 있다. 우물 옆에는 새로운 나무도 자라고 있다.

상자의 우측 하단에는 분수가 있는데 조의 모래상자에서 분수는 총 5번이 나온다. 샘과 분수는 어머니의 근원을 나타내기도 하며 영원한 삶의 생명수이다(Cooper, 1978/2014). Cooper(1978/2014)에 따르면 샘은 수도원, 마당, 정원 등의 가운데에 있는 우주의 중심을 뜻하며 불사의 원천으로도 보았다.

4. 7회기: 모래 상자 4

조는 6회기 에서부터 9회기까지 보물찾기를 계속하는데 von Franz(1997)에 따르면 Self는 크리스탈이나 보석 등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림 4에서 보물 안에는 금이 있는데 금 또한 Self를 상징하고 있다. 이와 관련지어 여기에서의 보물찾기란 Self 배열의 의미라 볼 수 있다. Cooper(1978/2014)는 보물찾기가 이중의 상징성을 갖는다고 설명하는데 가령, 감춰진 세속적 보물을 찾거나 혹은 진실된 자기나 자아의 발견이라는 영적인 보물을 뜻하였다. 이러한 보물을 발견할 때는 시련과 고난이 따를 수 있다고도 보았고 게다가 인간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라 초자연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부분에서는 조의 모래상자에서 표현

그림 4. 모래 상자 4

된 조력자들에게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었다.

조의 모래 놀이에서 어린 여아가 1등 보물을 찾게 되는데 6회기에서 조는 “부지런해서 1등 보물을 발견한다”고 도 표현해준다. 6세 아이가 쓰는 표현으로 볼 때 또래에 비하여 관찰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아이로 여겨지며 이러한 관찰력으로 부모도 관찰해서 볼 수 있을 것이다. 부모 간의 진실을 아는 아이로도 보여지고 조의 내면을 7회기를 걸쳐서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표현해주는 것이다. 즉, 자신의 내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

조는 7회기부터 동물이 나오기 시작해서 이후 7번 정도 등장한다. 그림 4에서 동물이 나오고 있는데 조는 “주인만 동물을 탄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내면 안의 본능 에너지와의 관계 형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억압이 아닌 길을 들이고 동물을 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조는 “이 동물이 가짜가 아니다.”라고도 표현하였는데 이는 그 본능이 가짜가 아니다라는 뜻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언니와 동생이 같이 있고 도와주고 있으며 우측 가운데에는 손을 씻고 있기도 한 것으로 보아 동생에 대한 질투는 극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5. 9회기: 모래 상자 5

9회기에 앞서 8회기 상자에서 쟈스민은 그물에 걸려 있었던 참새를 풀어주고 있다. 이전에는 다 같이 있다가 따로 분리되어있음을 유의미하게 볼 수 있겠다. 조는 표정이 거의 없이 억압되어 힘들었던 고통에서 감정을 분리한 것이고 내면세계에 더 많이 살고 있는 아이이기도 하다. 부모의 관계를 관찰할 수 있는 아이이고 ‘진실’을 읽을 수 있는 아이로도 여겨진다. 또한, 부모와 조 자신의 침대 사이에 동생의 침대가 있는 것이 동생에 대한 질투를 유발했을 것이다. 동생만의 보물이 되는 것도 조에게는 견딜 수 없었던 부분으로 작용할

그림 5. 모래 상자 5

수 있어 "가족 거에요."라고 말을 바꾸게 됐을 것이다.

조는 자신의 감정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할 정도이고 내면에는 표현하지 않았던 겉과 다른 상황의 대극인 셈이다. 하지만 쟈스민은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조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쟈스민의 측면을 통해 조가 싫어한 동생이나 엄마와 아빠에 대한 연민을 발달시킬 수 있게 된다. 용기를 얻어서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내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림 5는 이러한 가능성을 담고 있는 상자로 볼 수 있다.

우측 상단에 쟈스민, 벨과 신데렐라가 같이 있는데 이는 모두 조의 다양한 측면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고 쟈스민은 9회기에서도 새를 풀어주고 있다. 상자 앞에는 플라밍고가 분수대의 신성한 물을 마시고 있다. 또한, 동물과 함께 모여 있는 것이 중앙은 아니지만 밀집되어 있어 초점으로 볼 수 있고 동물 위에 타는 모습은 조가 본능의 구분과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았다. 또한, 본능 에너지를 타고 다니며 먹고 따뜻하게 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곧 양육이고 보살핌이 되는 것이다. 즉 먹이를 주고 물을 주는 의미이다. 우측 하단에는 불사조가 잎을 먹기도 한다.

6. 10회기: 모래 상자 6

그림 6에서 조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다. 9회기인 그림 5에서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미 나온 바 있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상록수로 신년(new year)를 뜻하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Cooper, 1978/2014). 이어서 Cooper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재생과 불사의 나무로, 밤에는 빛을 내며 선물과 촛불을 주는 <낙원의 나무>이다. 트리에 달려있는 촛불 하나 하나 영혼을 상징하며, 또한 <우주수>의 가지에서 빛나는 태양, 달과 별을 뜻한다. (중략) 성스런 나무인 소나무에게 금과 은의 장식물이나 종 등이 달려있다. (후략)"고 설명해주고

그림 6. 모래 상자 6

있다.

그림 6 앞쪽 하단 중간쯤에는 불사조가 등장하면서 사자 커플을 양 날개로 감싸 주고 있다. 사자는 동물의 왕이라고 불리는 힘 있는 동물이다. 사자는 바깥 세계로부터 지키고 외부세계에 배타적일 수 있는데 싸워서 이겨 암사자를 지켜야 하는 동물이고 경계가 분명한 동물이다. 이 무렵 집에 놀러와서 어지르며 놀고 가는 친구에게 "치우고 가!"를 표현하기도 하였는데 사자 가족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조에게 있어 새롭게 나타나는 측면으로 보게 되었다. 불사조는 밤에는 죽고 매일 아침 재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불사조는 고대의 이집트 및 그리스·로마에서 나왔던 전설적인 새로 고대의 문헌에서는 불사조의 생명을 500년 이상으로 보았다. 수명이 다하면 둥지에 불을 놓아 불 속에서 스스로를 살려내는 기적과 같은 생명력의 상징이다(브리태니커, 1978/2002).

성 위에 있는 인물들은 또 다른 가족의 상징일 수 있다. Cooper(1978/2014)는 남성 원리의 왕과 여성의 원리인 여왕은 지고의 통치권, 속세의 최정상을 상징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왕과 여왕을 나란히 세운 것은 완전한 결합, 왕 전체의 두 부분, 완성을 상징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림 6에서도 왕과 왕비는 중심 원리, 지배원리와 전체성과 관련이 있지만, 성에서 내려올 필요가 있다. 지나친 강요보다는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한 것이다.

7. 11회기: 모래 상자 7

그림 7의 11회에서는 다양한 동식물들이 있으며 동물원이라 동물들이 나오고 있지만, 새끼이거나 작아서 여전히 보호받고 돌봐야 하는 대상처럼 보인다. 조의 표현으로는 바다에는 연꽃이 있고 돌이 있는 곳에는 화산 폭발이 일어났다. 식물은 전체성을 나타내는 상징 중 하나로 식물은 빛을 향해 위로 자라나게 되지만 아래의 땅에도 붙어있어 식물은 땅과 관계를 맺고 있다. 식물이 땅과 관계 맺듯이 사람도 무의식과 관계를 맺는다면 자기 자신

그림 7. 모래 상자 7

이 될 수 있는 것이다(von Franz, 1997). 또한, 상자 우측에는 경비사, 요리사, 소방관 2명, 경찰관 2명, 다양한 사람들과 건물들이 표현되고 있다.

이때쯤 조는 혼자서 조부모를 따라서 1달이나 여행을 다녀왔고 생전 처음으로 길게 부모와 떨어져 지냈다. 여행을 다녀온 후에는 "나 혼자서 따라갔고 재미있었다."를 표현하면서 예전과 같은 분리불안 증상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11회기를 시작하면서 조는 친구와 있었던 일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냈고 조의 모 상담에서는 "예전에는 답답하고 싫었는데 지금은 아이가 많이 밝아졌고 얼굴에 웃는 표정이 있어요." 라면서 달라진 조를 위하여 부모 또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어공주 또한 조의 측면으로 볼 수 있으며 8회기부터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용기있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게 되는 당당한 모습 등은 달라진 조의 새로운 측면이 된다. 또한, 모래 상자에서 보이는 새를 풀어주는 쟈스민 또한 조의 새로운 태도이다. 모래 상자 안의 의자 개수의 수를 세고 그 수에 맞게 사람들 소품을 들고 오는 측면에서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며 활성화하는 것으로 보았다.

8. 12회기: 모래 상자 8

조의 모래 상자의 특징이기도 한 울타리와 벽이 12회기에서부터는 허물어지기 시작한다. 11번이나 계속된 경계의 표현이 드디어 사라진 회기이다.

얼어붙은 것이 녹기 시작한 것처럼 보이며 이곳의 장소는 바닷가이다. 맨 처음 조개 3개 갖고 오며 우측에 집을 짓기 시작한다. 변을 보는 아이도 있다. 우측 상단에는 우물 속에 연장이 들어가 있고 꽃과 식물이 자라고 있으며 맨 앞 가운데에는 눈 보석이 있다. 조는 "가운데 보석이 빠지면 이것이 사라지고 그러면 이곳에 비가 많이 오는데 그러면 싫다"고

그림 8. 모래 상자 8

언급한다. 바닷가에 놀러 온 사람들은 동물들을 타고 바닷가 놀러 온 것이다. 결혼 커플이 엄마, 아빠인데 노란 여자아이를 쳐다보고 있는데 처음에는 엄마, 아빠가 낳은 아이이고 방향을 돌린 후에는 왕과 왕비가 낳은 아이가 된다. 이 아이는 온몸이 노랑으로 된 아이이고 엄마 아빠가 낳은 아이이기도 하고 왕과 왕비가 낳은 아이로도 설명하고 있다. 이 상자 안에는 새롭게 태어난 아이, 운동하는 아이, 구경하는 아이, 술래잡기하는 아이, 응가를 누는 아이와 왕과 왕비가 결혼을 하게 되어 새롭게 태어난 아이가 있었다. 그림 8에서 조는 처음으로 집을 짓기 시작했고 그 밖에 케익과 자동차가 등장하고 있다. 8회기에서도 응가 누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것은 조가 동생과의 관계 측면에서의 해결이 변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제는 더는 영향력이 없는 과정으로 보았다. 연장을 가지고 집을 짓고 연꽃을 캐는 아이 등과 자동차와 자전거가 놓여진 좌측 하단에서는 조의 자아가 강해졌음을 보게 된다. 좌측 하단에는 멜로디가 나오는 오르골이 있고 오르골 소리에 웃으면서 모래 놀이를 즐겼다. 우물 속에는 연장이 들어가 있고 우측 상단에 있던 집은 그림 1에서 나온 같은 집이다.

경계가 사라지면서 모래 상자 사방으로 소품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다. 하지만 어수선하기보다는 그동안 숨을 쉴 틈이 없던 공간에서 밖으로 나와 자연과 어우러져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 이후 13회기에서 조는 집중적으로 집을 만드는 것에 몰두하게 된다.

9. 13회기: 모래 상자 9

이전의 자신을 방어하고 경계 지었던 울타리들이 그림 9에서는 모두 집을 짓는 데 활용되고 있어서인지 어느새 조에게서 보였던 긴장과 얼어 풀었던 표정은 눈 녹듯이 녹았고 건설적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그림 9에서의 우측 집은 조가 하나 하나의 재료를 찾아내 사용하여 새롭게 재건한 집이

그림 9. 모래 상자 9

다. 이 집에 활용된 재료는 3회기부터 나왔던 집과 외부를 경계 짓던 울타리로 사용되던 같은 재료이다. 이누아트(북에스키모인)들은 "외부인들과 접촉하기를 두려워했고(Cooper, 1978/2014)" 산악지역의 일본인들도 외부와의 왕래가 제한적이었음을 살펴보게 된다. Jung은 항상성의 원리로 에너지는 일정한 수준을 가지고 있다(Furth, 2002)고 하였는데 이전의 모래놀이에서 내담아가 유독 울타리와 경계를 많이 사용하였는데 그림 9에서는 모두 집을 짓는데 쓰인 후에는 외부의 울타리가 낮아졌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긴장할 때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상당히 많은 정신 에너지(psychic energy)가 있다(Furth, 2002)고 하였다. 나비(Cooper, 1978/2014)는 지상의 애벌레에서 용화 단계를 거쳐 하늘을 나는 것으로의 변신이 가능한데 작은 울타리 위에 앉아 있음은 변화를 암시해주는 것이다. 외부를 지나치게 의식하며 예민하게 긴장하여 방어와 경계로 쓰이던 많은 에너지를 이제는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여 전환되었음을 보게 된다. 조는 자신의 손이 연장이 되어 새로운 집을 지었다. 조는 이 집에 온갖 정성을 기울여 만들었고 만든 후는 "이제 다 했다. 휴~" 길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테이블을 붙잡으며 주저앉았다. 즉, 집을 구축하는데 온갖 노력을 기울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조는 각각의 재료가 넘어지면 또다시 세우기를 반복했고 쉽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세우고 연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집의 연결은 은색 진주 구슬과 황금색 오각형의 별로 이루어진 끈을 이어주었으며 "무섭지 않게" "도둑도 도망가는" 그러한 집으로 만들었다. 이전 회기인 12회기에서는 상자 속의 눈을 가리키며 보석 눈이라며 "보석 눈에서 보석을 빼면 마을에는 계속 비가 온다면서 비가 많이 오면 싫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는데 그동안 지내왔던 조의 실제 현실의 환경에서 부모들의 감정 및 집안 분위기와 연관 지어 볼 수 있었다.

조가 만든 구조를 보면 집 주변에 담처럼 낮은 테두리로 영역을 만들어주었으며 집 앞의 매트는 바깥과 집을 연결해주는 '중간 공간'의 의미가 된다. 집 안에는 원통을 사용했고 2층에는 다시 사각의 모양을 만들어주며 장식으로 마무리하였다. 커다란 원통은 그림 1에

나왔던 적이 있었던 병아리를 덮는 용도로 확인이 되었고 이를 활용하여 1층의 집을 만들고 2층에는 나무 재료로 만들어진 사각으로 된 문으로 만들어주었다. 모성과도 같은 무의식에서 'Self의 배열과 Self의 활성화'(Weinrib, 2004)가 필요하고 그 위에 사각으로 된 집을 만들어주었던 것은, Self의 바탕 위에 건강한 자아의 구축이 가능한 것으로 관련지어 본다. 이 상자는 전체적으로 사각형의 형태가 두드러져 있다.

집의 건축과 더불어 그림 9에는 2회기 때 나왔던 보석들로 유리구두, 보물, 왕관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2회기에 있었던 맨 앞의 비어있던 유리구두 한 짝은 그림 9에서 비슷한 지점에서 재등장하는데, 이때는 조의 아빠가 들어가 있다. 아빠 옆에는 인어공주가 바로 옆에 있고 그 앞에는 벨이 있다. 조는 인어공주가 처음엔 언니였다가 나중에 엄마라고 말을 바꾸기도 한다. 즉 말로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 조이었다가 또 엄마가 되기도 하였다. 조의 동생처럼 보여준 피규어이기도 하였다. 좌측 앞에는 쟈스민이 새를 놓아주고 있으면 좌측 하단에는 연꽃 위에서 꿀을 빨아 먹는 나비가 있다. 힌두교에서는 꿀은 지혜의 연꽃을 먹는 함사 새의 음식물(godmuseum.net, 2019)이기도 하며 이 새는 신라유물 유리구슬에도 그려져 있는 이 새는 성스러운 새로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나 영성'(Cooper, 1978/2014)을 의미한다. 좌측 상단에는 신데렐라가 식물원에 있는 나비를 바라보고 있다. 우측에는 노랑 옷을 입은 사람에게 왕관을 씌워주려고 하였고 가족 보물 위에 왕관을 올려다 놓는다. 가족의 보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조가 받아야 하는 왕관으로 '가족의 사랑'이며 가족의 보물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우측 하단의 춤추는 인물은 장단에 맞춰 춤을 출 수 있듯이 이러한 모래 상자를 만들 수 있는 것도 Self의 움직임(von Franz, 1997)과 발을 맞춰야 가능할 것으로 본다. 2회기에서는 비어있던 각각의 보물들이 그림 9에서는 채워지고 모아지고 있다.

10. 14회기: 모래 상자 10

그림 10에서는 10회기에서부터 애타게 기다리던 산타할아버지가 드디어 출현하게 된다. 누미노스의 경험을 하게도 되는데 초개인적인 힘에 의하여 도움을 받고 나서는 변화가 생긴다(Cameron, 2001)고 하였다. 13회기 이후에 조의 모래상자에서 보다 더 편안한 일상의 아빠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우측 하단의 아빠는 다들 잠들어 있는 아침에 일어나 책을 보기도 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아빠이다. 아빠가 책을 보고 있는 모습처럼 사고나 이성적인 측면과 연결된다. 또한, 그림 10 우측에는 대한민국이며 자신의 가족을 표현해주고 있고 좌측은 북극으로 펭귄, 고양이, 쥐가 놓여져 있다. 쥐와 고양이는 상극이지만 조는 잡아먹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동물도 모두 가족의 모습으로 보여줬다. 4마리의 펭귄 가족, 4마리의 고양이, 2마리 생쥐가 있는데 동물들은 각각의 1마리가 안에 들어가 있다. 산타는 그림 10

그림 10. 모래 상자 10

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은목걸이로 된 끈으로 마차를 끌며 우물을 마차로 활용하고 있다. 산타할아버지는 선물을 많이 준비하여 루돌프가 이끄는 마차를 타고 등장하는 장면이 참으로 인상적이다. 보통 산타는 선물을 들고 나타나는데 조의 모래 상자에서의 산타도 선물을 많이 준비했다고 하였다. 조에게 가장 중요한 선물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그림 11로 이어진다.

민담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정신의 깊은 영역에 있는 이미지들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무의식으로 내려가면 우리의 정신인 집단 무의식과 만날 수 있으며 바로 원형들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von Franz, 1997). 이것은 모래 상자 안에서 볼 수 있는 원형적인 인물들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원형적인 힘의 도움과 내적 자원의 보물들을 발견함으로써 얻게 되는 힘과 같이 작용한다. 조는 한동안 보석 찾기 놀이를 지속하게 되는데 4번의 보물찾기 놀이와 2번 정도 산타할아버지를 애타게 기다렸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주들이 등장하고 요정과 산타할아버지가 등장한다.

혼란된 상자 이후에는 중심화와 조직화로의 접근을 볼 수 있기도 하다(Cameron, 2001). 그림 10에서 산타가 이동하려는 곳에, 모래 상자 15회기 상자인 그림 11 가운데에서 중심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장소는 유치원이며 유치원에서의 연령대별 선생님들이 있으며 각각의 아이들을 보살펴주고 있다. 보물찾기를 하던 6회기에서 1등 보물은 남들은 못 보고 지나치지만 가장 부지런한 아이가 발견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꽃 아래에는 똑같은 크고 둥근 보석이 있다. "거대한 보물과 돈이 있고 피아노를 치며 노래를 불러요. 노래가 마법이 되고 이 노래는 마법의 열쇠를 나타나게 해주어 그 마법을 열 수 있어요." 하였다. 우측에는 이 글거리는 태양이 놓여져 있으며 둥근 꽃의 좌측에는 직사각형의 매트가 있다. 이 매트는 모래 놀이가 진행되는 동안에 자주 나왔던 매트로 조금씩 이동을 하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11. 15회기: 모래 상자 11

15회기인 그림 11에서 조는 가장 먼저 좌측의 학교 건물을 가져다 놓고 우측 하단에서 뽀뽀하는 어린 남녀커플이 있는 풍차를 이어서 놓는다. “나는 요, 내 동생 수가 오늘 유치원 가는 날인데 졸업식을 했어요. 수의 유치원이 어떨까하고 만들었어요. 내 유치원도 있어요.”라고 덧붙인다. 이글거리는 해를 좌측 학교 옆에서 우측으로 가져다 놓으면서는 “이것은 태양인데 내 동생 아기 때 유치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둥글둥글 만들까요?” 그러더니 “좋은 생각이 났다. 내 동생이 밥 먹을 때 똑같이 만들 수 있다! 여기가 유치원 식당이에요. 아가들은 안에서 밥을 먹어요. 이 학교 안에는 이런 것(침대를 가리키며)이 들어가 있어요. 태양은 아이들 모습을 비춰줘요. 수! 우리 동생(아기 소품을 보고)이고 선생님이 셋 있어요. 아기 선생님(좌측 상단), 형아들 선생님(우측 하단), 엄마 아빠 선생님(우측 상단)인데 아가들이 다칠까 봐서요!”

좌측 하단에는 요리사가 부엌에 있으며 그 옆에는 보물상자가 있다. “3개를 합치면 거대한 게 돼요. 보물상자에 하트가 있어요. 그 하트에는 왕관도 필요하죠!” 좌측 육각 보석상자 안에는 보석이 들어있고 우측 육각 상자 안에는 나비 요정을 넣어둔다. “보물은 대개 귀한 것이에요. 요정이 변신하면 옷이 바뀌고 그 애들은 영웅으로 변해요. 100명이나 변신하게 해줘요.” 커다랗게 둥근 구슬을 귀한 보물(가운데 지점에 있고 꽃으로 장식해줌)이라고 하며 이 거대한 보물 안에는 돈이 들어가 있다고 한다. 열쇠는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으며 선생님이 피아노를 치고 노래하면 그 노래가 마법이라 마법의 열쇠를 나타나게 해서 그 마법을 열쇠로 열 수 있어요.” 조가 모래 놀이에서 사용했던 침대는 2회기 때부터 나왔던 침대들로 모든 침대 위에 있는 아이들은 선생님의 케어를 받고 있다. 조는 만드는 내내 계속 흥얼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음식을 매우 소중하게 조심스럽게 담으며 접시에 담아서 카

그림 11. 모래 상자 11

트 위에 올려두고 침대 안에 넣으면 아기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떠먹여 준다고 하였다. 내 동생 수의 아기 때 모습이라며 "0살"이라고 설명을 덧붙이며 웃는다.

12. 16회기: 모래 상자 12

조의 모래 놀이에서 종종 등장하였던 노란 직사각형의 매트는 그림 12인 16회기 때 상자 중앙에 있고 매트 위에는 두 사람이 앉아 있다. 이전부터 모래 상자에서 자리를 이동하면서 등장했던 매트로 16회기 상자에서는 정 가운데로 자리하며 위치하게 된다. 매트 위에는 모자로 보이는 사람이 있고 좌측의 옷을 사는 사람들과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다. 가운데와 우측 하단에는 어머니와 아이로 보이는 피규어가 있다. 맨 가운데 침대는 옷을 파는 사람들이 쉬는 곳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상자 안에 모자로 보이는 쌍이 등장하였다. Kalff(2003)는 모자융합 수준에서 치유와 변환이 생기고 Neumann도 어머니 영역에서 치료가 생기며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하였다(Neumann, 2002).

3월이 되어 조의 모가 조의 걱정을 하자, 내담아 조는 "친구 사귀면 되지 뭐"라는 그리 어렵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고 밖에서 사람들을 볼 때도 먼저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예전에는 피하고 반응도 안 했는데 지금은 장난치는 모습과 웃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졌다. 이제는 치료실에서도 진열장이 높아 손이 닿지 않을 때는 자연스럽게 "도와주세요!"라는 말로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하고 선생님을 부를 때도 긴장감 없이 편안하게 부르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제는 머뭇거리거나 뜸을 들이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고 서두르지 않으면서 여유가 생겨 흥얼거리며 노래도 부르고 이야기도 스스로 먼저 꺼내기도 하였다. "오늘이 공주랑 신랑이 결혼하는 날이다. 왕자가 있어야 해! 왕자~ 왕자~ 왕자~(를 부르며 왕자를 데리고 오며 망토를 입혀보며) 망토!"를 외쳤다.

그림 12. 모래 상자 12

13. 17회기: 모래 상자 13

17회기인 그림 13에서 조는 탄생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 상자 좌측에는 결혼한 커플이 임신을 하였고 배 속의 아기를 나타내주고 있으며 옆에는 커다란 알도 같이 놓여져 있다. 좌측 가운데와 상단에는 그 밖의 음식들과 솥이 나란히 놓여져 있다. 전통적인 솥은 마치 팔로 감싸 안고 있는 가슴을 연상시켜준다. 가운데 솥 안에는 옥수수와 푸른 야채가 들어 있고 임신한 몸 앞쪽에는 바구니가 놓여져 있다. 바구니는 항아리, 그릇과 같이 품어주는 모성을 상징하고 있다. 먹거리와 사과도 바닥이 아닌 테이블과 운반대에 있다. 또한, 상자 우측에서는 결혼과 탄생이라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왕과 의사는 곧 결혼하게 되고 왕과 같이 가서 의사는 가운데에 있는 옷가게에서 옷을 사 입은 후 결혼을 하고 이 커플은 아이를 출산하게 된다. 아이는 장난을 치고 까불다가 다치기도 하지만, 왕과 왕비의 보살핌을 받는다고 하였다. 좌측과 우측에는 두 커플이 나오고 있으며 두 커플 모두 새로운 '아기'를 탄생시키고 있다. 이 무렵 조의 모 보고에 따르면 "요즘 (조가) 굉장히 달라져서 의사 표현이 확실하고 분명해졌어요"라는 내용도 들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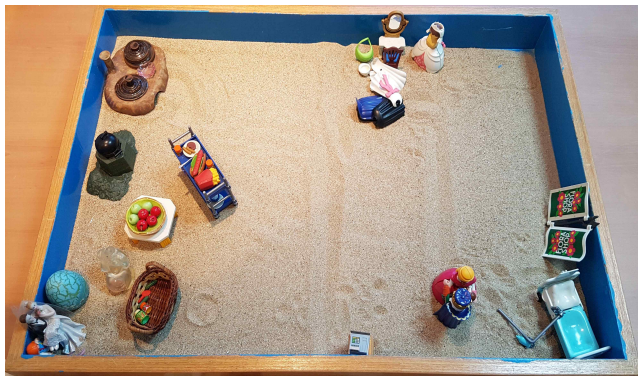

그림 13. 모래 상자 13

14. 18회기: 모래 상자 14

그림 14인 모래 상자 18회기에서는 풍성한 가족의 식사가 나온다. 음식을 함께 함은 사회적 행위로 자기를 제지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기능을 살펴볼 수 있고 음식을 함께 먹고 음식을 나누는 것은 가족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같은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기초적인 연대 의식이기도 하다(Jackson, 1996). 좌측에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고 온 가족이 모두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있다. 더 좌측에는 축복을 내려주는 요정이 있으며 요정은 마술 봉으로 식탁, 우물, 폭포, 미끄럼틀과 피아노가 있는 대각선 방향을 향하여 축복을 내려주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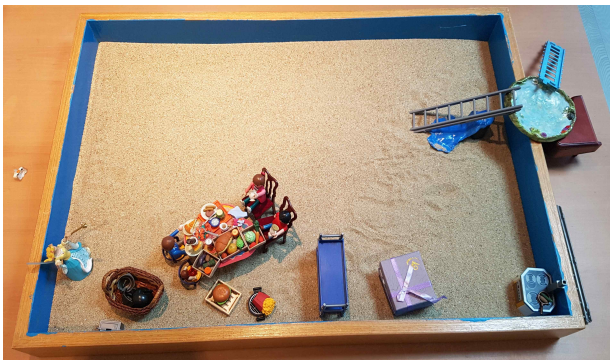

그림 14. 모래 상자 14

다. 오빠는 동생과 우측 물놀이장에서 놀다가 피아노 연습장으로 변한 피아노 연습장에서 피아노를 치며 논다. 놀다가 어서 와서 밥 먹으라는 소리에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게 된다. 이번 회기에 조는 식탁 위에 음식을 차리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다. 상자 우측은 외부와 연결되었고 모래 상자 밖으로 나가 이후 3개월 동안 조는 실제 모래 놀이를 쉬기도 하였는데 새로이 시작하는 유치원 생활에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었다.

이후에도 2회기를 더 진행하였고 총 20회기를 하였다. 종결 후 3개월 뒤에는 조의 모로부터 "처음으로 원래 말이 없고 얌전하고 조용한 아이인 줄만 알았는데 요즘은 남자아이와 같은 모습도 나오고 있어요."라는 내용의 보고를 듣게 되었을 때 조의 달라진 새로운 모습은 마치 불사조를 연상케 하였다.

그림 15. 피닉스출처: "Aberdeen Bestiary."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Aberdeen_Bestiary

Ⅳ. 결 론

조는 모래놀이치료 과정을 통하여 무의식으로 깊게 하강하였고 조의 심리적 여정을 따라 모래놀이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 조의 첫 모래 상자에서는 앞으로의 여정을 전체적으로 다루어주었으며 두 번째 모래 상자부터는 조가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었다. 조의 모래놀이치료 과정에서의 7회기에서부터 11회기까지는 억압의 풀림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었고 12회에서는 더 깊은 정신영역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13회기에서 입체적이고 구체적인 건설 작업이 가능했고 14회기에서는 고대하던 산타의 등장이 이루어졌으며 15회기에서는 중심화가 16회기에서는 모-자가 자리를 잡아 17회기에서는 새로운 탄생이 이루어져 18회기에서는 새로운 가족을 포함한 가족이 함께 식사를 나누었으며 이후 회기에서는 점차 더 현실 적응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전에 보였던 조의 불안은 표면적으로 긴장과 얼어붙게 되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모래놀이를 통하여 무의식을 표면으로 드러내 줌으로써 조의 문제시되던 증상은 사라지게 되었고 현실 적응적인 모습으로 나타났다.

조로서는 미처 몰랐을 가족의 문제를 조의 모래놀이치료를 통하여 다루어짐도 보았다. 억압되었던 가족의 무의식도 모래 놀이의 상징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 치유(Jung, 1981; Wickes, 1977; Copper, 1978/2014; Kalff, 2003; Wenirib, 2004; Furth, 2002; Homeyer & Sweeney, 2011)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게 된 사례이다. 조의 모래놀이 과정은 부모의 문제를 포함하여 대부분이 가족의 이야기가 주였다. 또한, 가족의 문제를 다루어줌으로써 조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모래놀이치료의 과정을 끝마칠 무렵 일상에서 조의 조부모가 조의 부모에게 사과와 동시에 화해의 손길도 내밀었고 조의 부모는 자신들의 문제를 들여다보게 되었다. 아직도 여전히 어린 조이지만 조가 모래놀이치료를 종결한 이후에는 부모들의 문제에서 분리되어 견뎌내는 힘이 생긴 것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러한 조의 자발적인 모래놀이치료의 과정 안에는 샘의 물을 먹고 불사조의 도움을 받아가며 연꽃을 획득하고 보물의 발견이 있었다. 자신에게 적합한 집을 짓고 요정과 산타 등의 도움을 받아가며 안전하게 자신의 심리적 여정을 마칠 수 있었다. 무의식은 무엇보다 삶에 대한 에너지의 힘(von Franz, 1997)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내면과의 소통이 있었기에 조의 새로운 '탄생'이 가능하였고 비로소 심리적 변환을 할 수 있었다고 본다. 즉 버림받은 듯한 소외된 감정과 불안 등은 죽고 대신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서 자신의 환경에 맞이할 수 있는 새로운 힘과 용기가 새로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민담 속의 원형적 이미지들은 정신의 가장 깊은 영역에 있는 차원에서 존재(von Franz, 1997)하는데 모래놀이치료에서의 이미지들과 같다고 볼 수 있겠다. 원형적 이야기는 어둠과 우울을 경험하는 자아의 죽음으로 정신 안에 의식을 확대하는 연금술적 변형과정으로 볼 수 있다. 고대 피닉스 신화

처럼 재가 어둠에서 빛으로 올라오는 회복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다(Marks, 2013).

본 사례는 부모가 표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조가 가족의 무의식 즉, 집단 무의식과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조의 무의식에서는 이미 다 알고 다루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게다가 자신의 연령에 맞는 개성화 과정과 더불어 부모의 개성화 과정도 이루어져야 함을 동시에 알려주는 사례이기도 하였다. 자신의 작업뿐 아니라 부모의 문제까지도 면밀하게 표현하여주었는데 집단 무의식은 훨씬 더 깊고 더 넓게 통하는 영역임을 깨닫게 해주었다. 상징이 표현되면서 나타나는 변화와 더불어 모래놀이치료는 깊고 강력한 매체로 심리적 변환(Kalff, 2003)의 다리로 작용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가족의 문제를 공유하는 조의 사례를 다루면서 같은 주제의 후속 연구도 절실하며 더 확대될 필요성이 있어 보였다. 다른 주제의 사례에 있어서 모래 놀이의 심리적 변환과정을 살펴보는 연구도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한 아동만을 다룬다고 하더라도 가족의 문제나 다른 가족 구성원을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이 보였다. 더불어 모래놀이치료의 영역이 더 확대되어 활용될 수 있음을 기대해본다.

References

Boo, J. M. (2014). A case study of sandplay therapy on a child with selective mutism: A case of a life continuing over time in sandplay therapy. *Joural of symbols & Sandplay therapy, 5*(1), 45-57.

Britannica. (1970/2002). *Encyclopaedia britannica.* USA: Encyclopaedia britannica Inc.

Cameron, S. (2001). *Recognizing The appearance of the Self in sandplay therapy.* Doctor of Philosophy. The California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

Cooper, J. C. (1978/2014). *An illustrated encyclopedia of traditional symbols.* 이윤기 옮김. 서울: 까치글방.

Furth, G. M. (2002). *The secret world of drawings: A jungians approach to healing through art.* Toronto: Inner city books.

Homeyer, L. E. & Sweeney, D. S. (2011). *Sandtray Therapy.* New York: Routledge.

Jackson, E. (1996). *Food and transformation. Imagery and symbolism of eating.* Toronto: Inner city books.

Jung, C. G. (1981). *The development of personality.* R.F.C. Hull 옮김. New York: Bollingen series xx princeton university press.

Kalff, D. M. (2003). *Sandplay.* Cloverdale: Temenospress.

Kowen, M. R. (2017). A 10-year-old girl's overcoming the negative mother complex and It

relationship to ego development. *Joural of symbols & Sandplay therapy, 8*(1), 1-32.

Lee, M. A. (2010). Coming of age: Sandplay therapy of an anxious youth. *Journal of symbols & Sandplay therapy, 1*(1), 41-60.

Marks, C. W. (2013). *Transforming Cinderella: A fairy tale of individuation.* M. A. in counseling psychology. Pacifica Graduate Institute.

Neumann E. (2002). *The Child: Structure and Dynamics of the Nascent Personality.* New York: Karnac.

Pattis Zoja, E. (2018). *Where souls meets matter. Clinical and social applications of jungian sandplay therapy.* Asheville: Chiron Publications.

Riedel, I. (2002, 2013). *Formen.* 신지영 옮김. Zurich: Papier.

von Franz, M. L. (1997). *Archetypal patterns in fairy tales studies in jungian psychology by jungian analysts.* Toronto: Inner city books.

Weinrib, E. L. (2004). *Images of the Self.* Cloverdale: Temenos press.

Wickes, F. G. (1977). *The inner world of children.* Loundon: Coventure ltd.

국가지정중요유형민속문화재구오오도가주택[웹사이트]. (2019.10.18.). URL: http://gero-gassho.jp/lg_ko/gassho/.

그루터기[웹사이트]. (2019.10.17.). URL: https://m.catholictimes.org/mobile/article_view.php?aid=269064&params=page%3D3%26acid%3D741%26top%3D741

사라카와고의 세계유산에 관하여[웹사이트]. (2019.10.17.). URL: http://shirakawa-go.org/zaidan/about_ko.html

시라카와 마을[웹사이트]. (2019.10.17.). URL: https://www.welcometojapan.or.kr/location/regional/gifu/sirakawagou.html

이글루[웹사이트]. (2019.10.18.). URL: https://ko.wikipedia.org/wiki/%EC%9D%B4%EA%B8%80%EB%A3%A8

Apple[Website]. (2019, Oct 18). http://www.umich.edu/~umfandsf/symbolismproject/symbolism.html/

Phoenix(mythology)[Website]. (2019, Oct 17). https://en.wikipedia.org/wiki/Phoenix_(mythology)

투고일 : 2019. 10. 30
수정일 : 2019. 12. 10
게재확정일 : 2019. 12. 23